

강진청자박물관 제8회 고려청자 학술세미나

강진청자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일시 : 2006. 10. 21(토) 13:00 ~ 16:30
- 장소 : 강진도예문화원 1층 시청각실

강진청자박물관 제8회 고려청자 학술세미나

강진청자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일시 : 2006. 10. 21(토) 13:00~16:30
- 장소 : 강진도예문화원 1층 시청각실

강진청자박물관 제8회 고려청자 학술세미나

기조연설	1
강진 청자요지의 회고와 전망(정양모, 경기대 교수)	
발표1	11
강진 청자요지 연구의 성과와 앞으로의 문제점(최 건, 조선관요박물관장)	
발표2	19
고려청자 제작기술의 특징(강경인, 단국대 강사)	
발표3	31
고려중기 상형청자의 조형적 특징(백은경, 화정박물관 선임연구원)	

강진청자요지의 회고와 전망

정 양 모(경기대 교수)

I. 서언

고려청자는 당시 한국인이 창조한 가장 독특하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자기였으며 고려인의 자존심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는 물론 미래에도 그 독특하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한 조형정신은 우리겨레의 영원한 자존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문화가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독특한 창조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강진 청자요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창조정신 즉 독창성과 독특하고 아름다운 조형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서 우리문화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아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그 소중한 가치는 사장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우리의 소중한 위대한 문화유산인 청자의 조형정신을 되살려 복원하고 재현하면서 계승발전시켜 나가려하고 있지만 과연 그 조형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발전하고 있는지 크게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마음을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여기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도자기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청자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 더욱 잘 지켜 나갈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짚어 보고져 한다.

II. 강진청자요지와 조사연구

강진청자요지에 대한 조사연구는 애석하게도 1913년 일제 침략시대에 강진군 대구면 주재소에 근무하던 나카시마(中島義軍)가 최초로 청자요지를 발견 상부에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14년에는 당시 이왕직 박물관의 스에마쓰(末松熊彦)가 현지를 조사하고 1916년 조선총독이 강진지역을 방문하여 경성일보에 보도되면서 일반에게 알려졌다고 하며 1925년에는 나카오(中尾萬三)가 현지를 조사하였다. 그러면서 최초로 본격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한 것은 1928년에 조선 총독부박물관의 노모리(野守建)와 오가와(小川敬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노모리는 대구면 청자요지 100여개소를 확인하고 요지분포도도 작성하였다. 이러한 본격적 조사결과인 대구면을 중심으로 작성한 요지분포도 외에도 칠량면 삼흥리 요지 지도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대구면의 계율리에서는 계율리 25호 청자가마를 발굴하여 노모리의 저서에 그 결과가 소개되었으며 오가는 사당리에서 청자개와 편을 현지 초등학교학생에게서 구입했다는 기록도 있다. 1939년 10월18일에는 노모리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청자요지가 분포되어 있는 강진지역의 187,582평이 100여개소로 구획되어 「朝鮮寶物古跡 名勝天然記念物 保存令」에 의거 고적 107호로 지정되어 법적으로나마 보존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라를 되찾고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지조사를 한 일이있으며 1963년 1월 21일에는 우리나라 문교부 고시를 통해 강진 청자요지가 국가사적 68호로 재지정되었다. 본격적인 조사연구는 1963년 5월의 늦은 봄 최순우, 정양모가 강진 대구면 일대의 사정을 살피고 지표조사를 하고 그 해 늦가을 사당리요지 7호와 27호사이에 있는 사당리 117번지 이용희씨 집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부터 비롯된다.

1963년 가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특기할만한 학술적자료가 발견되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만한 자료는 청자개와 요지의 조사와 발견이었다. 이로말미암아 1157년 『高麗史』에 나오는 '養怡亭' 청자개와의 비밀이 밝혀졌고 1157년을 기준으로 한 12세기 전중반기의 수많은 편년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가마조사를 기반으로 이웃 7호등 다른 가마와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1964년부터 1977년사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과에서는 9차에 걸쳐 사당리 117번지와 사당리 41호 107번지등 그 인근의 요지를 조사발굴하였다. 이 조사에는 인근의 여러곳에 대한 기초조사를 겸하였으며 사당리 126번지와 129-130번지 당전 (현 향자료관 우측)에서 12세기의 가마를 조사하여 문화재 관리국의 협조로 지금 보호각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¹⁾ 또한 매해 용운, 향동, 용문, 사당, 계울, 미산, 수동리 등 일대의 지표조사로 종전 100여 개소이외에 53개소를 더 찾아서 분포도를 작성 발표하고 아울러 강진을 위주로 하여 우리나라 고려청자에 대하여 「고려청자요지와 출토품」²⁾이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용운리 10호에 대한 조사발굴을 시행하였다. 이 조사는 용운리 저수지 신설공사에 따른 것으로 이 조사에서는 모두 4기의 가마유구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2기는 조사 후 경화처리하여 10-1호 가마는 국립광주박물관에 10-4호가마는 현재 당전부락 강진 청자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우리나라 청자요지조사에서 조사 후 이를 보존과학적 처리로 경화시켜 절단 이전하여 다시 복원전시하는 최초의 사업이었다. 이때 9호 요지의 일부를 시굴조사한 바 있다. 또한 1982년에는 이때까지 전국의 청자요지를 조사한 성과를 총정리하여 「고려청자도요지」(최순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를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강진청자요지를 비롯하여 고려요지를 망라하여 사진과 간단한 사진해설과 지역별 약도를 게재하였다.

1986년에는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에 강진군고려청자사업소가 개소되어 청자의 본고장에서 20세기의 청자를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상은 이미 1977년 강진 고려청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 틀이 잡혀지게 되었다.

1991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강진군의 발주로 해강도자미술관이 주축이 되어 강진의 청자요지를 재삼 정밀조사하여 새로 35개소의 요지를 확인하여 이때까지 강진청자요지는 전부 188개가 확인된 셈이다. 이 결과는 「강진의 청자요지」, 강진청자요지지표조사보고서 제 1, 제 2, (해강도자미술관, 전라남도 강진군, 1992) 도판편과 지도편으로 나누어 지도와 도판과 해설과 비

1) 이에 대하여는 「강진 사당리요지 출토 청자」와 「미술자료제 9집,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에 약식보고가 되어 있다.

2) 「세계도자전집」 18. 고려 소학관 일본동경, 1973, 190~233쪽)

교분석표와 개관등이 있는 이때까지 출간된 강진요지 책자중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요지조사 보고서이다. 1997년에는 사당리 당전에 고려청자박물관이 개관되었다. 1976년 소규모였던 강진 청자전시관을 커다란 규모로 재건하여 재개관하였다. 이로서 비로서 강진 현지에 고려청자를 연구하고 현지 유적을 조사 보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2001년 9월부터 2002년 3월 사이에 칠량면 삼흥리 일대의 발굴조사가 시행되어 청자요지 여러곳을 조사하였다. 이 중에 특징적인 것은 대구면 가마보다 가마의 길이가 짧고 가마바닥의 경사가 매우 급하였으며 청자가마에서 도기도 같이 번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조사는 삼흥리 저수지 확장공사에 따른 것으로 조사 후 가마형태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것은 보호조치 후 매몰 보존하였다.

Ⅲ. 강진청자요지의 보존대책

현황 :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최초로 우수한 자기를 생산한 나라이며 지금 전세계 자기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일본과 구주지역보다 7-800년을 앞선다. 전국에는 자랑스런 도자요지가 방방곡곡에 산재하고 있다. 이 요지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매일 매일 파괴인멸되어 우리 도자기의 뛰어난 조형정신을 조사연구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막중한 문화유산인 이 중요한 자산을 지금 우리들이 짓밟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중에 이곳 강진만은 민관이 이 유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다른 곳보다 잘 보존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깊이 감사드리며 다른 지역에서도 강진의 사례를 보고 배워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강진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할 강진청자요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여기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굴에 의한 파괴: 벌써 오래전부터 강진요지는 다른 요지보다 심하게 도굴되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청자파편이 돈으로 환산되고 어떤 파편은 고가로 매매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느 도굴범이 야밤 산중에서 엄

청난 고가의 파편을 캐내기 위해 가마자리를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야밤 등 인적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굴행위는 어떻게 방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개발에 의한 파괴: 개발과 보존은 칼날의 양극과 같다. 개발을 위주로 하면 자연과 문화유산은 파괴되고 만다. 자연보존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문화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발은 목전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편리하고 재력이 바로 증가하기도 하고 사업주최자에게는 가시적인 사업성과 눈앞에 큰 이득을 보고 칭송받기도 한다. 그러나 개발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향차 문화재보존지역과 그 인근에 대한 개발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으로 긴 안목으로 보면 목전의 이익과 성과에 급급하여 큰 것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용운리 정수사에서 향동, 용문 사당리 등에 큰 길이 들어섰다. 용운리에 저수가 들어서고 용수로가 생겼다. 사당리에 청자사업장이 생기고 현재 청자를 번조하는 가마가 들어서고 큰 작업장이 생겼다. 고려청자 박물관이 생기고 해마다 커다란 문화행사를 하고 음식점, 유기장 등 각종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이러한 추세가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사업은 현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유적과 유물이 없는 곳에만 설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항상 유적보존은 개발사업에 밀려 유적조사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민족문화는 허가받고 개발하는 주체에 의하여 항상 심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IV. 강진청자 유적의 규모와 성격

유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아니하다. 문화환경이라는 말이 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유적을 제대로 보존하려면 유적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면 요지의 예를 들어 발굴조사하여 가마만 과학적으로 경화처리하여 보호각만 세우면 되는 것인가. 요지는 요지자체로서 가마도 있고 작업장

도 있고 숙소도 있다. 작업장은 흙을 파다 부려놓는 장소, 흙을 수비하는 장소, 수비한 흙을 말리고 보관하는 장소, 흙을 이기고 밟는 장소, 여러 가지 물레를 돌려 성형하는 장소, 문양을 나타내는 장소, 시유하는 장소, 문양을 연구개발하는 장소, 유약을 연구 실험하는 장소, 태토를 연구 실험하는 장소, 성형 시유한 것을 말리는 장소등 수많은 작업장이 유기적으로 각기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고 완성된 청자를 분류처분하는 곳과 명품과 양품과 일반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폐기장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비품을 만든 여러 공방도 있고 많은 비품 창고도 있어야 한다.

흙을 파오고, 수비하고, 말리고, 밟고, 성형하고 문양을 새기고 상감하고 시유하고 건조하고 초벌, 재벌, 번조하는 수많은 장인들이 거처하는 생활공간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이 있어야 한다. 여기따라 길도 있고 꽃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면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갔을 것이다.

강진은 개경의 중앙정부에서 관찰하는 특별한 생산체제였을 것이다. 호암박물관에 있는 청자 「辛丑」 명 '상감모란당초문벼루'(보물 1382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벼루는 고려 風字硯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측면에 모란당초문을 상감하고 상면(周緣)에는 완자문을 음각하고 硯面가운데는 약간패이고 노태이며 硯面 사방 네곳에 음각의 약식 국화절지문이 있다.³⁾ 벼루밑 바닥 주변은 유약을 훑어내고 내화사도 눈자국이 12개 남아있다. 이러한 형태와 문양도 중요하지만 고려의 풍자연벼루와 같이 이 벼루도 밑바닥 중심을 파내고 상감과 음각으로 된 다음과 같은 명문이 있다. 「辛丑五月十日造爲大口前戶正徐敢夫(이상 백상감) 淸沙硯壹隻黃何寺(이상음각)」 敢은 敦으로 볼 수도 있다. 辛丑年은 1189(명종 19년)으로 추정되며 호정은 호장(戶長), 부호장(副戶長)다음의 향리 직급으로 호정(戶正)밑에는 부호정(副戶長) 사(史)가 있다. 호정과 같은 직급으로 병정(兵正)과 창정(倉正)이 있으며 그 밑에 각기 부병정(副兵正) 병사(兵史)와 부창정(副創正) 창사(倉史)가 있다. ⁴⁾ 여기서 여기서 호정서씨는 대구소(大口所)의 호장, 부호장을 보좌하여 향리들

3) 청자의 주인공은 전호정(前戶正)이고 연면사방에 있는 음각국화절지문과 비슷한 모란 절지문이 음각으로 시문된 묘지가 있다. 이 묘지는 석재로 팔관화형이고 중앙을 종으로 직사각형으로 파내고 「樂浪金氏女父戶長智源」이라고 음각하였다. 지문(誌文)주위 세 곳에 모란절지문이 있어 같은 향리집안의 유물로 같은 양식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향리의 딸의 묘지라는 점도 청자벼루와 함께 당시 향리의 지위를 재고할 수 있는 자료일 것이다.

4) 다시 보는 역사 편지 고려묘지명(高麗墓誌銘). 국립중앙박물관, 2006. 46-47쪽. (청자국화모란무늬 신축명 벼루조 참조)

의 집무소인 읍사(邑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이행하는 향리였을 것이다. 여기서 소(所)는 부곡(部曲)과 향(鄉)과 같이 일정한 행정구획이고 그 격이 군(郡)·현(峴)과는 차이가 있고 거주민도 군현거주민보다 신분이 낮을 것이다. 단, 소(所)는 수공업을 하는 곳으로 거주민은 장인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의 소에 대하여 자료가 많지 않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진현 고적조에 대구소(大口所)와 칠량소가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도 대곡소(大谷所) 산계소(山計所) 산심소(山沈所) 종옥소(鍾玉所), 구계소(舊溪所), 부원소(富元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소와 칠량소는 조선 중종조때에는 강진의 유명한 고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⁵⁾ 이렇게 보면 강진에는 여러 소(所)가 있어 호장, 호정 등 향리가 현지에서 청자 생산과 소 거주민의 제반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음을 물론이다. 청자벼루의 명문에서보면 전호정(前戶正)을 위하여 명품청자벼루를 만들었을 뿐아니라 전후 사정을 벼루에 상감과 음각으로 남겼다는 것은 강진소의 향리가 실생활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았으리라 짐작이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서경(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化奉使高麗圖經) 19. 민서(民庶) 공기(工技)조에 고려공기지고 기절에실귀우공(高麗工技至巧 其絕藝悉歸于公)⁶⁾이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품청자벼루를 특별히 전호정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은 대구소의 위상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려의 대구·칠량소등 자기소는 호장·호정 등 향리들이 현지에서 그 운영등제반업무를 관장하였겠지만 중앙에서 파견된 요직(窯直)이 직접업무를 도와주고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사(高麗史) 식화지(食貨志) 녹봉(祿俸) 권무관(權務官) 녹조(祿條)에 문종(文宗) 30년 소정규정(所定規程)에 8석 10두(八石 十斗)를 받는 관원중에 「제요직(諸窯直)」이 있고 인종(仁宗)조에 개정할 때에는 8석 10두를 받는 관원중에 「육요직(六窯直)」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권무직의 권(權)은 임시로 맡는다는 뜻이 있어 「권무(權務)」나 「권지(權知)」가 일반관직명 앞에 붙으면 임시직이라는 뜻이다. 고려초에는 순수한 임시직이었으나 성종(成宗)·문종(文宗)년간에 업무가 많은 관청의 판관(判官) 녹사(錄事) 직(直) 등이 권무직으로 고정되었다. 또한 권무관은 이속(吏屬)과 문반직(文班職)의 중간 역할을 했으므로 강진 자기소와 같이

5) 「고려의 문화와 자기」 이기백, 세계도자전집 18. 고려 소학관 1978. 3,4장 참조

6) 각주 3과 같음.

대규모의 자기소에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업무를 관할하다가 성종·문종대 이후에는 업무량이 늘어 고정직으로 자기소를 관할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제요직과 육요직에 대하여는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문종연간에는 여러가마에 파견되어 가마의 업무를 관할하는 권무관이었고 인종연간에는 고려청자가 절정의 단계에 이르고 중앙의 수요도 늘어나서 강진의 여섯군데 자기소에 파견되어 가마업무를 관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기에 이러한 상황한 논고를 제시하는 것은 대구소등 강진의 자기소가 규모도 컸을 뿐 아니라 수많은 각종 장인과 호장, 부호장, 호정, 부호정, 사 등의 향리와 중앙에서의 파견된 요직(窯直)들이 있어 특히 이곳 대구소와 같이 한때 대규모로 명품청자를 생산하던 대구소의 읍사의 규모도 상당히 컸으리라 짐작이 된다. 지금과 같이 가마하나 조사하고 보호각을 세우고 국지적으로 몇 십, 몇 백평을 지정해놓고 강진청자요지 유적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전부락의 고려청자는 한국최고의 청자 명품 생산지로서 최소한 여기 걸맞는 조사와 보존대책이 강구되어 청자요지의 전모를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강진청자요지의 보호대책

강진 청자요지 유적의 진정한 보존대책과 강진의 청자 산업의 발전과 강진의 문화적 역량의 제고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강진유적이 도굴과 개발 등으로 파괴일로를 걷다가 관민의 각성과 이해로 보호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청자사업소가 설립된 후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초기에는 강진요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한 두사람의 적극적인 의견과 활동이 심한 비방과 반대에 부딪혔던 것도 사실이다. 고려청자자료전시관이 생기고 청자사업소가 설립되고 고려청자박물관이 재개관 되어 점차 주민의 이해가 높아져서 현재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요지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은 한 두 사람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려청자박물관의 관장을 따로 임명하고 연구조사하는 학예직의 수효를 늘려서 강진현장에서 강진요지에 대한 보존조사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

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조사연구직을 보조하는 직원이 있어 조사연구도 보조하고 특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요지들을 수시로 둘러보고 도굴 여부를 살피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유적의 보호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당전부락 특히 현 청자박물관과 청자사업소가 있는 곳은 당전요지 중에서도 가장 요충중의 요충이다. 여기에는 이미 장황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당시 대단히 큰 규모의 여러 가지 작업장 등 시설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또 그 주변에 장인들의 주거건물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유구들이 지상과 지하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여 지금같이 여기저기 건물이서고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이미 당전유적은 청자유적이 아닌 전시행정을 위한 걸치레에 불과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현재 청자박물관의 주변에 있는 시설물은 현재 위치의 북쪽등성이 너머에 아무 유적이 없었던 곳으로 이전하고 거기서 청자축제도 열고 여러 가지 지방 문화 경제발전에 유익한 사업과 행사를 하여야만 당전 유적이 보존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대로 당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당전 유적은 결국 다 없어지고 누가 이곳이 세계적인 청자 명품을 생산하던 많은 시설물이 있었다고 생각할 것인가. 수 많은 작업장, 가마, 읍사등의 유적을 찾아내어 보존하고 일반에 관람케 함으로써 이곳이 바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드높은 강진 청자 요지이고 그러므로서 우리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으며 우리문화의 찬연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당전일대는 우리나라가마 뿐 아니라 세계청자가마의 성지이다. 따라서 당전현장의 시설물은 청자박물관 하나로 족하고 청자사업소도 청자를 굽는 가마도 기타시설물도 모두 이전하고 당전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성역화하여 고려시대의 영화를 되살려 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긴 안목이 필요하다. 장기간의 계획과 투자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목전의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VI. 청자사업소의 문제

청자사업소는 벌써 30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많은 경험과 기술력이 축적되었지만 고려청자 명품에 비한다면 그 거리가 너무 멀다. 유약, 태토, 조형, 문양 등이 하나도 고려청자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 전국의 고려청자 재현품을 만드는 어느 가마도 비슷한 실정이며 다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고려청자를 외형적으로 재현해 보는 것도 뜻이 있지만 이제 재현보다 그 조형정신을 살려 현대 우리 생활에서 청자의 쓰임새가 어디서 필요하고 그 쓰임새가 있을 곳을 찾아내어 청자의 쓰임새와 수요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청자의 유약과 태토를 다양하게 발전시켜 각기 쓰임새에 맞도록 개발하여 누가보아도 쓰기 편하고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조형과 문양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에 맞는 조형과 문양을 과감하게 개발하여 청자의 근본조형정신이 그 속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으면서 현대생활에 혼연히 적응되고 또 현대생활을 청자 조형정신에 맞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즈음 각 대학에서 거의 청자교육을 하지 아니한다. 각지의 청자 가마도 줄고 있다. 대학에서 백자등과 함께 청자의 교육을 늘려나가야 하며 청자의 조형정신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교육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의 요업연구기관에서도 청자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아름답고 다양한 태토와 유약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진 청자사업소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작품향상에 천지개벽의 정신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청자사업소에 태토, 유약 실험연구실, 조형과 문양연구실 등이 있어야만 비로서 대학과 연구소와 외국의 유명도자사업소와 교류하면서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康津 靑磁窯址 연구 성과와 앞으로의 문제점

朝鮮官窯博物館 崔 健

1. 1차 자료의 이해와 분류 기준

1) 1차 자료의 올바른 이해

자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하긴 하지만, 실제 1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상대적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의미와 성질을 분석해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그 결과는 논리 전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료에 대한 이해과정에서 작은 오차는 논리 전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기본적인 논증 자료의 부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 수집 당시 유적이거나 유물에 대한 현장과 실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고서 등 관련 기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때에도 여러 각도에서 검증이 필요하며,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최초 자료의 발견자의 견해를 비중있게 고려한다든지 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예컨대, 발굴조사한 강진 용운리10-1호가마의 경우, 보고서에는, “가마의 윗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 길이가 1,030cm(mm의 오자로 판단됨)에 이르며, ... 측면 출입구의 간격은 160cm이며 2개소 남아 ...”라고 기록하여 파손된 후 발굴 당시까지 남아 있는 길이가 10.3m임을 분명히 밝혀 놓았다. 이 말은 파손 이전의 가마 길이는 15m, 20m이거나 아니면 30m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도 현존 길이 10.3cm의 용운리 10-1호 가마가 2000년 이후 도자사 관련 연구논문에는 전체길이 10.3m로 파악되어 삼흥리 D지구 청자요구와도 같은 10m 정도라고 하면서 그룹핑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의 초기청자가마들도 이러한 계열(가마길이 10m)에 속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하여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가마의 규모에 대한 논증 자료 가운데 하나로 채택하는 오류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1차 자료의 관찰과 분석의 오류와 그 결과를 다른 연구자들도 아무런 확인이나 비판 없이 그대로 옮기면서, “(삼흥리가마를) 강진 용운리와 비교해 보면,

용운리10-1호 가마는 길이 10.3m, 내벽 폭 120~130cm의 반지하식 등요이며… 삼흥리 D지구 청자가마와 길이 및 너비에서 유사함을 보인다.”라고 하여, 전체 가마 길이를 확인할 수 없는 용운리10-1호와 10m가 분명한 삼흥리 D지구 청자요구를 같은 계통으로 판단하는 심각한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이 용운리10-1호 가마유구는 현재 국립광주박물관 전면에 이전 복원되어 발굴상태 그대로 실물을 관찰할 수도 있는 경우여서 가마 길이에 대해 재론의 여지는 없다. 앞서와 같은 도자사 연구자들이 직접 복원 가마를 확인할 경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리라 예상된다.

역시 용운리10호 구역 퇴적층 출토유물의 상대편년문제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경우도 퇴적층에 대한 이해와 유물 분석과 분류 과정에 나타나는 작은 오류가 여러 과정을 거치는 논리적 전개 과정에서 극대화되면서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어낸 경우이다. 예컨대, 원래 보고자들은 10호 퇴적은 I 층과 II 층으로 크게 나누었는데, 분류와 해석 과정에서 I 층과 II 층을 연결된 층위로 간주해 버린 점이 다. 이 두 개 층이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판단에는 소위 간층(間層)이 없다는 것이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마 퇴적층의 구성 요소(유물 파편, 가마벽파편, 모래 등 각종 가마 폐기물과 자연 또는 인공적인 생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경우, 1차 유물 퇴적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2차 퇴적이 이루어져도 간층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상대편년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또 보고서에는 용운리 10호 I 층을 햇무리굽완(日暈底碗) 포함층 10호 II 층을 비햇무리굽계라고 정의하고 실제 10-1호가마나 10-2,3,4호 가마는 10호 II 층이라고 하여 10호 I 층의 광범위한 퇴적층이 형성된 후에 10호 II 층 퇴적층과 10-1,2,3,4호 가마가 축조 운영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용운리 계율리 일대의 단일 가마 퇴적의 범위가 50평 정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퇴적의 범위가 넓은 I 층 구역에도 한 기 이상의 가마가 각각 시대를 달리하면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4기의 가마가 발견된 10호 II 층 역시 각각 시대를 달리한 가마가 연속적으로, 또는 일정한 시간적 격차를 두고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유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분류의 기준

유물의 분석과 분류 방법에는 ‘어떠한 施文 기법이 사용되었나’ 하는 것이 가

장 큰 기준이 되어왔으며 이 기준에 맞추어 편년문제 및 조형적 특징을 규명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이 방법은 최고 수준의 양질청자인 비색청자와 상감청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질적으로 조질청자로 구분되는 소위 녹청자와 철화청자, 퇴화청자의 경우, 이것들을 양질청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고자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불합리하거나 난처한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청자 전체의 생산량에서 조질청자의 비중이 훨씬 더 높으며 제작 기간과 기술, 생산지 및 소비지와 관련된 문제에서 각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 두 종류의 청자들은 처음 분류 단계에서부터 구분한 후 문제에 접근해야만 각각의 전개과정과 성격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자 문화의 다양한 계보와 특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청자의 질적 수준은 유색과 형태와 문양의 세련도로 판단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는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보편성을 갖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청자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번조법(燔造法), 유태(釉胎)의 질, 마조법(磨造法), 내화재(耐火材), 시문기법(施文技法) 등 청자의 가시적 관찰을 통한 요소들을 대상으로 질적 분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① 燔造法

가마 안에 그릇을 넣는 방법에 따라 질적 분류가 가능해진다. 내화압 안에 그릇을 하나씩 넣어 번조하는 갑번(匣燔)은 유약의 용융 상태가 일정하고 또 불순물이 표면에 달라붙지 않아서 양질청자에는 필수적인 방법이지만 갑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서 생산량이 적으며 별도로 갑을 제작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 반면 도침(陶枕) 위에 여러 개의 그릇을 포개어 번조하는 상번(常燔)은 갑번에 비해 생산량이 많고 생산비용이 낮은 장점은 있지만 용융 상태가 불안정하며 그릇의 내저면에 모래와 내화토비짐의 거친 흔적이 남고 불순물이 붙는 단점이 있는 조질청자 번조법이다. 갑번과 상번의 중간 수준인 예번(例燔)은 도침 위에 그릇을 하나씩 놓는 것으로 내화압을 사용하지 않는 조질청자요지에서 비교적 높은 품질의 청자를 제작할 때 쓰는 방법이다. 예번은 갑번과 상번에 비해 가마 내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서 생산량이 적고 표면에 불순물이 붙는 단점은 있지만 상번의 가장 큰 결점인 내저면에 거친 내화재 받침 흔적이 없기 때문에 내화압 기술과 여건이 되지 않는 상번에서 특별히 좋은 품질의 그릇이 요구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번조법에 따른 청자의 질적 수준은 소비자인 사회 계층의 차등에 따라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갑번, 예번, 상번으로 구분되는 번조법은 질적 기준의 객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② 釉胎의 質

유약과 태토의 질은 청자의 색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청자 유약은 담회청색과 담녹색을 조금 띠는 유리질의 투명체이며 이 투명한 유층을 통해 본 태토의 색(釉胎色)이 곧 청자의 색이다. 따라서 유약 자체의 색은 청자의 질적 분류 기준이 되기 어렵고 유층의 두께와 균열의 상태, 시유 상태가 결정적 요소가 된다.

양질청자는 유면이 일정하고 광택이 있으며 유층은 0.5mm 정도의 두께로 미세한 기포를 포함하고 있다. 용융상태가 안정된 경우 균열이 없는 것과 수지상(樹枝狀) 빙열(氷裂)이 있는 것으로 나뉘는데 이 현상은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작은 그릇인 경우 접지면까지 완전하게 시유되며 대형의 일부는 접지면과 외저면에 유약을 굽어낸 경우도 있다. 조질청자는 유층이 0.2mm 이하로 얇고 기포가 적으며 광택은 약하다. 태토가 거칠어서 표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면도 따라서 불규칙하며 용융상태가 안정된 경우에도 전면에 미세한 망상(網狀)의 균열(龜裂)이 나타난다. 대형은 물론 소형기명의 경우에도 접지면의 유약을 완전히 굽어내거나 저부까지 시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태질도 질적 분류의 기준이 된다. 양질청자의 태질은 미립으로 치밀하여 낮은 광택을 내는 반자기질(半磁器質)로 경도(硬度)가 높은 편이다. 태색은 밝은 회색에서 회청색을 띠며 태토 내에 눈에 띄는 기포는 없다. 그러나 조질청자는 태토 내에 굵은 백색의 규석 입자와 불순물이 포함되어 거친 질감을 내며 경도가 낮은 도기질(陶器質)에 가깝다. 태색은 황갈색에서 녹갈색을 띠며 기포도 많은 편이다.

이와같이 갑번의 양질청자는 유층이 두꺼우며 수지상 빙열이 날 수 있으며 태질은 미립으로 치밀한 것이며, 예번을 포함하는 상번의 조질청자는 유층이 얇고 망상의 균열과 불순물이 포함된 것이다.

③ 磨造法(굽 깎는 방법)

자기 성형은 두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물레 위에서 형태를 만드는 과정과 적당히 건조한 다음 뒤집어서 굽을 깎아내고 외측면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데, 이 때 외측면을 다듬는 정도에 따라 양질과 조질청자의 구분이 가능하다. 양질의 경우 외면 구연부에서 굽까지 전면을 칼로 깎은 후 칼자국이 나지 않게 표면을 다듬어

일정한 곡면을 유지하지만, 조질은 굵과 주변의 저부까지만 칼로 깎아내고 나머지 외측면의 물레 흔적을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전면을 칼로 깎은 후 거친 칼자국을 그대로 두게 된다. 청자도 갑번으로 변조된 양질청자는 예외 없이 외측면이 일정한 곡면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번을 포함한 상번의 조질청자는 거친 칼자국과 물레 흔적이 남게 된다.

④耐火材(굽 받치는 방법)

유약을 씌운 자기의 경우 접지면이 갑받이나 도침에 융착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온용 내화재를 사용하게 된다. 청자에 사용된 내화재는 가장 생산량이 많은 완(碗)과 발(鉢)의 경우, 백색 미립의 내화토를 3mm 내외의 두께로 접지면에 3~5군데 받친 것(백색 내화토 받침)과 굵은 모래를 섞은 담황색 내화토를 5~10mm 내외의 크기로 빚어서 접지면과 그 주변에 4~5군데 붙인 것(담황색 내화토 비짐), 태토를 10mm 내외의 크기로 빚은 후 접지면 주변의 4~5군데 붙인 것(태토 비짐), 5mm 크기의 어린이 송곳니 모양의 규석을 저면 안바다에 3~4군데 받친 것(규석 받침)과 1~2mm 굵기의 모래를 뿌린 도침 위에 놓은 것(모래 받침)이 가장 보편적이고 사용 예가 많은 대표적 방법 들이다. 드물게 백색 내화토비짐과 흑색 점토 비짐, 꼬막조개와 굴 껍질 받침이 있지만 이들은 일부 지역의 특수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재료를 달리하는 다섯 가지 방법은 시대적 특징과 함께 양질과 조질청자의 구분을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백색 내화토받침은 9,10세기 청자의 발생기에 나타나는 특징적 내화재이다. 서남해안지방에 분포하는 초기청자 요지들의 경우 갑번과 상번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굵받침은 모두 백색내화토받침이다. 11세기경 세련기에는 작은 백색 내화토비짐과 작은 담황색 내화토비짐, 규석 받침이 갑번에 사용되고 있으며 상번은 비짐이 커지고 거친 모래가 섞인 담황색 내화토비짐만 사용한다. 12, 13세기 절정기와 성행기에 갑번의 양질청자는 대부분 규석 받침이며 대형기명의 경우 담황색 내화토 비짐을 사용하지만 상번의 조질청자는 대소기명 구분 없이 모두 담황색 내화토 비짐만 사용한다.

11세기 이후 13세기 후기까지 규석 받침은 갑번 양질청자의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13세기 말기부터 규석 받침이 사라지고 내화갑도 사용하지 않는 데, 이는 양질청자의 소멸과 함께 고려청자 제작기술의 전반적 쇠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예번이 갑번을 대신하며 양질청자는 한 등급 낮아진 예번

으로, 조질청자는 상변으로만 제작하게 된다. 내화재로 규석 받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예번은 도침 위에 굽은 모래를 뿌리고 그릇 하나만 올려놓기 때문에 접지면에 굽은 모래가 붙게 된다. 여러 개의 그릇을 포개 쌓는 상변은 도침 위에 놓인 것은 접지면에 굽은 모래와 내저면에는 태토비짐이 붙어 있으며, 그 위에 쌓은 그릇은 접지면과 내저면에 모두 태토비짐이 붙게 된다. 갑변이 재등장하는 시기는 15세기전기 인화분청(印花粉靑)이 고급화되고 백자가 제작되는 단계이며, 태토비짐은 16세기까지, 모래 받침은 근현대까지 지속된다.

이상에서 발생기는 갑변과 상변 모두 백색 내화토 받침, 그 이후 13세기까지 갑변에는 규석 받침이며 예번과 상변은 담황색 내화토 비짐·모래 받침·태토 비짐이 사용되고 14세기 이후에는 갑변과 규석 받침이 사라지고 예번과 상변에만 담황색 내화토 비짐·모래 받침·태토 비짐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릇의 접지면 관찰을 통하여 양질과 조질청자의 구분이 가능해 진다.

⑤施文技法

청자의 대표적 시문기법은 음·양각(陰·陽刻)과 양인각(陽印刻), 상감(象嵌), 그리고 철화(鐵畫)와 퇴화(堆花) 기법이다. 여기서 음·양각, 양인각을 포함한 투각(透刻), 상형(像形) 기법 등은 모두 조각칼을 사용하여 태토 표면을 깎거나 조각하는 것이며 상감기법도 먼저 음각을 한 후 그 틈에 흑·백토(黑·白土)를 메워 넣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칼로 깎아서 문양을 새기는 '각기법(刻技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철화와 퇴화의 경우 태토 표면 위에 붓을 사용하여 흑·백토로 문양을 그리는 '화기법(畫技法)'으로 시문 과정과 태토의 조건이 각기법과 전혀 다르다. 표면을 예리한 조각칼로 깎기 위해서는 태토 입자가 미립이며 치밀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문양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정선된 태토와 세련된 조각 기술을 보유한 양질청자에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며 아주 드물게 각기법이 사용된 조질청자의 문양은 기술과 표현력에서 저급한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붓으로 그리는 화기법의 경우 태토 표면의 상태가 문양을 그리는 데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질청자에 사용해도 충분한 장식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시문기법도 양질과 조질청자의 조건에 맞게 선택되고 있다. 숙련된 기술과 문양을 새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각기법은 갑변의 양질청자에 어울리는 기법이며, 짧은 시간에 쉽게 그릴 수 있는 화기법은 예번이나 상변의 조질청자에 어울리는 기법이다.

위와 같이 청자의 질적 분류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변조법과 유태의 질, 마조법, 내화재 등의 상태는 고려시대의 청자는 물론 조선시대 백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사실 시문기법도 절대 기준이 된다. 그러나 문양이 없는 소문(素文)의 경우 조형적으로 가장 세련된 최고급 청자의 필요조건이기도 하지만, 그 반면 다량생산 되는 조질청자의 거의 대부분이 소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양의 유무로서 청자의 질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高麗靑磁 製作技術의 特性

姜 景 仁(檀國大學校 講師)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청자는 청색계열의 색상을 띠는 도자기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청자의 유색에만 기준을 둔 것으로 도자기에서 기본요소인 태토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자의 색상에서 고려청자는 태토와 유약의 색이고, 반면 중국청자는 태토를 배제한 유약 자체의 색으로 표현되어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인다.⁷⁾ 그러므로 고려청자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태토, 유약, 번조 등 전반적인 도자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찍이 도자기의 특성을 이해한 바탕에서 고려청자는 철분의 환원염에 의한 청록색의 자기라고 정의한 바 있다.⁸⁾ 이 정의는 유약과 번조의 제작기술에 대한 특성을 분명히 파악한 개념이지만, 도자기의 기본요소인 태토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청자의 태토와 유약특성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고려청자의 유약특성과 부합되지만 태토가 백색인 조선시대 도자기를 백태청유자(白胎靑釉磁), 청유백자(靑釉白磁)라고 명명하여 구분하기도 한다.⁹⁾

고려청자에 대한 지속적인 도자사의 연구와 더불어 1980년대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청자의 과학기술적 연구도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표 1과 같이 연구자 및 학문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¹⁰⁾ 특히 교육적 기능을 지닌 사전이나 국

7) 최건, 「청자의 색과 형, 그의 특징」, 『靑磁의 色 形』(조선관요박물관, 2005), pp. 354-359.

8) 高裕燮, 秦弘燮 編譯, 『高麗靑瓷』(三星美術文化財團, 1981), pp.14-16.

9) 김영미, 「조선시대 관요 청자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pp.5-10.

10) 정양모, 「한국청자와 중국청자의 특징」, 『靑磁의 色 形』(조선관요박물관, 2005), pp.298-310. ; 강경숙, 『한국도자사』(일지사, 1990), pp.3-5, 168. ; 崔健, 「高麗陶磁의 性格と 展開」,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第10卷(小學館, 1998), pp.335-34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p.224-231. ; 고등학교 국사(교학사, 2006), p.283. ; 정창주·백용혁·이태호,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적 68호 고려청자 도요지에서 출토된 청자파편에 관하여」, 『호남문화연구』제32집(전남대학교, 1982), pp.217-248. ; 임응국, 「한

사교과서에서 보이는 고려청자의 제작기술에 대한 이해는 중국청자의 특성에 근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려청자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우선 커다란 범주에서 고려청자의 제작기술에 대한 보편적 특성만이라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청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물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고려청자의 제작기술을 밝힐 수 있는 단계로 보인다. 따라서 본 글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고려청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넓은 범위에서 고려청자의 제작기술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도자기의 기술적 측면에서 태토, 유약, 번조기술에 대하여 접근한 것이다.¹¹⁾

〈표 1〉

국의 열(청자)」, 『요업재료의 과학과 기술』 1권 1호(한국요업학회, 1986), pp.78-89. ; 강경인, 「전남지역의 고대 토기 및 도자기에 관한 자연과학적 연구」(전남대학교박사학위청구논문, 1997), pp.42-96. ; 방병선, 「한국도자제작기술연구」, 『장과미술사 23호』(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4), pp.355-356. ; 이영은·김규호·고경신, 「한국 자기 발생기의 청자와 백자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27권 1호(한국과학사학회, 2005), pp. 59-86. ; 中國古陶瓷圖典(文物出版社, 1998), pp.51-53. ; 張福康, 『中國古陶瓷的科學』(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0), ; 日本陶磁大辭典(各川書店, 2002), pp.755-756. ; 內藤 匡, 『古陶磁の科學』(雄山閣, 1986).

- 11) 姜景仁, 「高麗初期靑磁における窯構造と生産技術の相關關係」, 『貿易陶磁研究』 NO.25(日本貿易陶磁研究會, 2005), pp.116-128. ; 강경인·이종민·양정석, 『용인서리 고려백자요지 도편분석 연구보고서』(용인시·용인문화원·여주대학, 2004). ; 姜景仁, 「科學的 分析結果를 통해 본 康津靑磁의 技術的 特性」, 『강진 고려청자의 우수성』(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4), pp.29-55. ; 강경인, 「강진 삼흥리요지 A, B, D지구 토기·청자의 과학적 분석연구」, 『강진 삼흥리 요지 I』(호남문화재단연구원, 2004), pp.376-432. ; 鄭龍華 外 5人, 「海底出土 高麗靑磁의 微細構造 및 成分分析 研究」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 文煥哲 外 5人, 「引揚 靑磁의 微細構造 및 材質分析 研究」, 『務安 道里浦 海底遺蹟』(2003), pp.228-247. ; 강경인, 「해남지역에서 출토된 청자의 기술적인 고찰」, 『박물관년보』 제11호(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pp.39-56. ; 김규호 외 4인, 「시흥 방산동 가마터에서 출토된 청자와 백자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 『芳山大窯』(海剛陶磁美術館, 2001), pp.343-380. ; 高慶信, 「韓國における靑磁の傳統技術と近代的发展」, 『東洋陶磁』(東洋陶磁學會, 1997), pp.81-90. ; 강경인·정창주, 「전남지역에서 출토된 고대도자기의 태토조성과 소성온도」, 『보존과학회지 통권 제7호』(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1997), pp.15-30.

표 1. 고려청자 및 중국청자의 연구자료에서 살펴본 청자의 제작기술 특성

구분		태도	유약	온도	분위기	비고
도자사	정양모(2005)	장석질로 骨力과 粘力を 배합 철분이 1.5-2%	석회유, 철분 3%	1250℃전후	환원	태도·유약성분, 가마구조, 분위기에 따라 색상변화
	강경숙(1990)	철분함량이 적절한 태도	장석유, 철분양이 적절한 유약	-	환원	장석유: 깃물예다 장석이나 석영을 같이 넣은 유약, 1200℃이상에서 녹음
	최 건(1998)	적토(赤土)가 원료	석회유	-	환원	가마구조와 관련된 색상변화
과학기술	정창주, 백윤현, 이태호(1982)	뒤적정도가 주원료, 철분 3%내외	점토와 재를 혼합	1200℃내외	환원	강진의 청자
	임응극(1986)	점토(도석으로 간주) 철분 2-3%	석회유, 철분 1-3%	-	환원	강진의 청자
	강경인(1997)	2차정도가 주원료, 산화철 1.8-3%	석회유(lime계열 유약), 산화철 1.5-3%	1180℃±20℃	환원	강진, 해남, 부안의 청자
	방병선(2004)	-	-	1180℃±20℃	환원	용인 서리와 시흥 방산동 청자
	이영은, 김규호, 고경신(2005)	-	라임계열 (lime type glaze)	1100-1150℃	환원	용인 서리와 시흥 방산동 청자
사전, 교과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6)	철분이 조금 섞인 백토	장석질 유약, 철분 1-3%	1250-1300℃	환원	변조방법의 차이로 색상변화
	고등학교 국사(2006)	자토	규석, 산화알루미늄이 주성분, 철분 1-3%	1250-1300℃	-	
중국	中國古陶瓷圖典(1998)	활수율 0.5-1%, 철분 2%이상	철분 2%이상	1230±20℃ -1300℃	환원	원시청자와 청자로 구분에서 청자부분
	中國古陶瓷的科學(2000)	高硅低鋁(盜石) : 남방초기청자 高鋁低硅(高嶺土) : 북방청자	석회유 석회-감유(碱釉)	1150-1250℃ 1200-1300℃	환원	南宋이전의 청자 南宋이후의 청자
일본	日本陶磁大辭典(2002)	자기질, 반자기질, 도기질 철분을 함유한 점토	장석을 사용 철이 함유된 유약	-	환원	주로 중국청자를 대상
	古陶磁の科學((1986)	-	장석유 산화제·일철 1-3%	1260-1300℃	환원	중국청자를 대상, 장석유: 장석에 재를 첨가한 유약(회유)

II. 청자 제작기술의 특성

고려청자는 환원분위기의 번조에 의해 회색계열의 태토와 녹색계열의 유층으로 이루어진 제작기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자에서 유약이 청자의 색상을 좌우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태토색상, 번조조건 등 매우 복합적인 요건에 의해 청자의 색상을 띠게 된다. 청자는 일정한 범위의 산화철이 함유된 태토와 유약제조 기술에 바탕을 두고, 안정적인 청자의 색상을 발색하기 위해 효율적인 번조기술을 모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 태토

도자기의 태토는 다양한 광물로 구성된 천연원료를 사용하여 성형에 적합하고, 건조 및 번조과정에서 높은 온도의 영향으로 단단하게 변화하는 도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이러한 태토는 사용되는 원료광물의 종류 및 특성과 그러한 원료광물의 비율에 따라 도자기의 특성을 결정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청자의 태토에 사용된 원료는 완전히 자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벌구이의 도편을 통해 일부 규명이 가능하고, 석영, 장석, 견운모, 점토광물로 구성된 원료가 청자의 사용원료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청자는 제작지역, 시기에 관계없이 유사한 태토조성이라는 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태토조성의 폭은 넓은 편이다. 청자의 태토에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산화철 1.8~3%, 산화티타늄 0.6~1.1%가 함유되어 있고, 제작시기, 지역 또는 가마구조와 관련하여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태토의 특성에서 산화철과 산화티타늄의 성분은 화학적으로 청자태토의 색상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이들 성분이 환원번조의 화학반응으로 발색되는 태토의 회색은 청자의 바탕색상을 이룬다.

대부분 청자태토의 주원료는 점토의 생성과정에 따라 분류되는 2차점토(퇴적점토)로 추정되고, 2차점토의 종류에서 청자의 태토와 같이 일정한 범위의 산화철과 산화티타늄이 함유된 점토가 청자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원료종류일 것이다.¹²⁾ 최근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청자요지에서 적어도 2차점토

12) 窯業技術院, 『陶磁器 原料(I) -粘土-』, 『陶磁器 原料(II) -高嶺土·陶石-』(1997). ; 청자태토와 같이 산화철을 함유하고 있는 도자기 원료에서 고령토나 도석은 산화티타늄의 함량이 낮은 반면, 점토는 산화티타늄의 함량이 많은 경향으로 구분된다.

를 주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청자가 제작된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¹³⁾ 그리고 청자는 태토의 주원료인 점토를 채취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입자의 크기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고운 입자만으로 이루어진 점토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태토에 사용된 원료의 정제과정여부는 태토조직에서 보이는 거칠기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고, 청자의 태토에 함유된 입자크기가 청자의 질적인 상태에 크게 영향을 준다. 고려시대 청자에서 양질과 조질로 구분되는 청자는 기본적으로 원료종류 및 원료의 정제과정을 포함한 태토의 제조기술과 관련성을 보인다.

2. 유약

청자의 유약은 청자의 색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고, 본격적으로 고려시대에 유약의 제조와 시유하는 기술로 도자기를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도자기의 유약이란 인위적으로 제조한 조합물질로 태토의 표면에 시유하고, 용융온도의 범위에서 녹아 유리화되는 물질을 말한다. 고려청자의 유약은 용융온도의 범위에서 녹고, 유리질을 형성하는데 가장 커다란 용제의 역할을 하는 원료종류에 따라 「석회유(lime-glaze)」로 분류된다. 석회유라고 분류되는 청자의 유약은 고려시대 장기간에 걸쳐 유약제조에 기술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이 사용된 특성의 유약이다. 이러한 석회유계통은 고려청자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당(唐)에서 오대북송(五代北宋)시대에 걸쳐 제작된 중국청자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유사한 유약종류이다.¹⁴⁾

청자의 유약은 화학적으로 산화칼슘 13~20%가 함유된 유약조성이고, 산화칼슘의 공급원으로 재(灰) 또는 석회석의 원료를 사용한다. 청자유약의 화학성분에서 산화인(酸化燐)의 함량으로 보아 고려청자에는 산화칼슘의 공급원으로 석회석보다는 초목을 태워 얻어지는 재를 유약의 원료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⁵⁾ 더불어 산화칼슘의 공급원으로 석회석보다는 재를 사용한 유약이 훨씬 양호하게 녹는 특성을 나타내는 점을 고려하면, 재를 사용한 석

13) 강경인, 「여주 안금리 요지출토 도기 및 청자의 제작기술」, 『여주 가남CC 골프장조성부지내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발간예정). ; 이 요지의 청자는 태토 및 유약에 산화철과 산화티타늄이 매우 적게 함유된 상태와 부합되게 비교적 밝은 색상을 띤다. 특히 태토에 0.2%이하의 산화티타늄이 함유된 특징으로 다른 지역의 청자와 원료종류에서도 명확히 구분된다.

14) 張福康, 『中國古陶瓷的科學』(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0), pp.39-66.

15) Margaret Medley, 金英媛 譯, 『中國陶磁史』(悅話堂, 1986), p.145.

회유가 당시의 가마구조 및 번조기술로 청자를 제작하는데 가장 적합한 유약이었을 것이다.¹⁶⁾

그리고 청자유약에는 산화철 1.5~3%, 산화티타늄 0.5~1.2%가 함유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유약에 함유된 산화철의 함량이 많아지면 색상이 짙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산화철 1.5~3%사이가 청자의 유색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한 범위로 판단된다. 태토와 마찬가지로 이들 성분 및 그 함량은 화학적으로 청자에서 유약의 색상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건이 된다. 청자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태토와 유약에 함유된 산화철의 환원번조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화학반응에 따른 발색이다. 그리고 산화티타늄은 산화철이 함유된 태토와 유약에서 발색보조제로 청자의 색상변화에도 영향을 준다.¹⁷⁾ 화학적으로 산화철과 산화티타늄 함량은 청자색상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건이 되고, 이들 성분이외에도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청자색상이 변화한다.

3. 번조

고려청자의 번조는 그 이전시기 보다 높게 온도를 올리고, 분위기조절이 용이하도록 축조된 가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도자기의 제작에서 가마구조는 제작시기에 따라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번조온도, 분위기, 시간이라는 번조기술의 수준도 점차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번조기술은 도자기의 종류 및 가마구조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적으로 제작된 도자기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이다. 태토와 유약으로 제작된 도자기는 번조온도와 시간에 따라 태토의 자화 및 유약의 용융상태가 결정되고, 청자와 같이 주로 산화철에 의해 발색되는 도자기의 색상은 번조분위기를 중심으로 번조기술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¹⁸⁾

고려시대 청자가마의 연구에 따르면, 청자는 가마터가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가마구조 및 생산방식 등에서 다른 양상으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¹⁹⁾ 청자를 생산하였던 가마구조는 가마를 축조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벽돌로 축

16) 동일한 석회유의 조성에서 칼슘공급원인 재와 석회석의 원료종류에 따라 유약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와 상태가 달라진다. 재를 사용한 유약보다 석회석을 사용한 유약은 석회석의 분해에 열에너지가 소비되므로 반응이 늦어져 녹기 시작하는 온도도 높아지고, 녹는 상태도 양호하지 않다. ; 高嶋廣夫, 『陶磁器釉の科學』(內田老鶴 補, 1996), pp. 123-132. ; Robert Tichane, 『Ash Glazes』(Krause Publications, 1998), pp.173-175.

17) Prudence M. Rice, 『Pottery Analysis』(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336.

18) 內藤 匡, 『新訂 古陶磁の科學』(雄山閣, 1986), pp.29-35.

19) 이종민, 「고려시대 청자가마의 구조와 생산방식 고찰」, 『한국상고사학보』(한국상고사학회, 2004), pp.71-106.

조한 전축요(博築窯)와 진흙으로 축조한 토축요(土築窯)로 구분한다. 전축요는 일반적으로 약 40m의 길이에 200cm 내외의 폭을 갖고 있으나, 토축요는 소형의 경우 10m, 규모가 크더라도 20m를 넘는 예가 적으며 폭도 120~140cm 정도이다. 가마의 축조방식과 규모에 따라 청자가마가 위치하는 지역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서부지역과 전라남북도의 남서부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청자의 번조기술은 가마구조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가마구조 및 번조기술이 청자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청자의 번조온도는 1,250℃내외 또는 1,250~1,300℃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번조온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및 일본에서 중국청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청자의 태토를 대상으로 한 과학적 분석연구에서 청자는 대체로 1,180±20℃의 온도범위에서 번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⁰⁾ 이러한 청자의 번조온도는 청자유약과 같은 석회유에서 가장 낮은 온도의 녹는 조성이 1,170℃라는 사실과 중국 월주요의 당에서 오대복송시대에 걸쳐 석회유를 사용하여 제작된 청자의 번조온도 범위에 놓여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²¹⁾ 따라서 고려청자는 가마구조와 규모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안정적이고 변화가 없는 석회유라는 청자유약의 제조와 유약의 녹는 온도범위에 해당하는 번조기술에 의해 장기간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자의 색상은 보편적으로 청색, 청록색, 녹청색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 색상변화의 폭이 넓은 편이다. 이러한 청자의 색상변화는 산화철과 산화티타늄의 함량변화보다 번조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번조분위기에 따른 청자의 색상변화는 가마구조의 차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마규모가 적은 토축요의 청자는 양호한 환원분위기에서 발색되는 회색의 태토와 녹청색의 유층이고, 가마규모가 커다란 전축요의 청자는 환원보다 중성 또는 산화분위기에 치우쳐 회갈색의 태토와 녹갈색의 유층으로 색상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청자의

20) 강경인, 「전남지역에서 출토된 고대도자기의 태토조성과 소성온도」, 『보존과학회지 통권 제7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1997), pp.25-29. ; 방병선, 「한국도자제작기술연구」, 『강좌미술사 23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4), pp.355-356.

21) 素木洋一, 김박운 譯, 『유약과 그 안료』 (대광서림, 1988), p.38. ; 李家治 主編, 『中國科學技術史(陶磁卷)』 (科學出版社, 1998), pp.114 -137.

색상변화는 태토에 존재하는 산화철의 상태를 분석하여 확인된 환원도(還元度)에서 중서부지역의 전축요 청자가 15~29%, 남서부지역의 토축요 청자가 62~74%로 변조분위기의 영향이라는 내용과 일치한다.²²⁾ 따라서 고려청자의 제작에서 가마구조는 변조분위기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고, 그 결과 색상이 다른 청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자의 변조에서 커다란 규모의 가마보다 작은 규모의 가마가 환원변조에 적합하고, 양호한 청자색상을 부여하는데 효율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가마는 커다란 가마보다 짧은 시간에 변조온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변조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온도를 올리는 변조기술은 도자기제품에 많은 결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²³⁾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청자의 변조는 가마규모 및 초벌구이 유무에 따라 변조시간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커다란 규모의 가마보다 작은 규모의 가마에서 변조시간이 길지 않으면,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지만 가마내 위치에 따라 온도편차가 크게 되므로 긴 변조시간과 환원분위기로 전환하여 가마내 온도편차를 줄일 수 있는 변조기술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작은 규모의 가마내 온도편차에 대한 인식은 가마의 세부적 특징이 다르지만 고려시대 도기요지에서 출토된 도기가 연질과 경질도기에 따라 200℃정도 온도차이가 있고, 짧은 시간에 변조되어 청자와 다르게 도기의 파단면이 층으로 구분되는 색상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²⁴⁾ 따라서 고려청자는 가마규모 및 초벌구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긴 시간에 의해 변조되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청자의 변조시간은 파단면에서 보이는 태토와 유층의 경계면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길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마규모가 다른 가마구조는 온도를 올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냉각시간에도 영향을 주고, 냉각시간의 차이는 용융된 유약에서 투명성을 달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마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냉각시간이 짧아지고, 짧은 냉각시간은 유층에서 결정성장이 억제되어 가시적으로 보다 투명한 유층

22) 앞의 논문 14, 방병선. ; 산업자원부, 『전통도자기의 기술개발』 (2000), p.30.

23) 素木洋一, 『工業用陶磁器』 (技報堂出版株式會社, 1969), pp.188-194.

24) 강경인, 「강진 삼흥리요지 A, B, D지구 토기·청자의 과학적 분석연구」, 『강진 삼흥리 요지 I』 (호남문화재단 구원, 2004), pp.376-432. ; 「강진 삼흥리요지 E, F지구 토기·청자의 과학적 분석연구」, 『강진 삼흥리요지 II』 (국립광주박물관, 2004), pp.261-306.

이 형성된다.²⁵⁾ 그리고 변조기술에서 초벌구이의 유무는 유층에 잔존하는 기포상태를 달리하여 유약의 투명성에도 영향을 준다. 유층에 기포는 초벌구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보다 많이 잔존하고, 유층의 투명성이 떨어진다.²⁶⁾ 이러한 유층의 투명성에 대한 차이는 가마규모 및 초벌구이의 유무를 달리하는 고려청자에서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려청자의 제작에서 중요한 변조과정은 가마구조와 관련하여 변조기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변조기술의 변화는 청자색상에 그대로 반영된 상태이다. 양호한 색상을 띠는 청자의 제작에는 안정적 변조기술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작용하고, 작은 규모의 가마가 안정적 변조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청자를 생산하는데 적합한 가마구조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가마규모가 작은 토축요는 고려시대 장기간에 걸쳐 청자를 제작하는 가마로 사용된 반면, 가마규모가 커다란 전축요는 고려시대 전기이후의 가마터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도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①

Ⅲ. 청자의 색상에 대하여

고려청자와 같이는 청자는 색상에 기준을 두고 분류되는 도자기이다. 고려청자는 청자의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바탕에서 제작된 도자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청자에서 표현되는 색상은 오늘날 과학기술적 시각에서 보면 과학적 매우 복잡한 물리화학적 요건에 의한 발색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자기의 환원변조는 가마의 내부에서 일산화탄소를 생성시키고, 생성된 일산화탄소가 태토 및 유약에 함유된 산화철과의 화학반응으로 태토와 유약에 색상을 부여하게 된다.²⁷⁾ 고려청자와 같이 태토와 유약에 함유된 산화철 1.5~3%는 환원변조에 의해 태토가 회색, 유약이 녹색 내지 청색으로 발색된다. 산화 또는 중성분위기에서는 환원변조와 다르게 산화철의 화학적 변화가 크게 없어 태토와 유층은 갈색 내지는 황색으로 발색된다. 따

25) Pamela B. Vandiver, Louise A. Cort, Carol A. Handwerker, 「Variation in The Practice of Ceramic Technology in Different Cultures : A Composition of Korean and Chinese Celadon Glazes」, 『Ceramic and Civilization』 (American Ceramic Society, 1989), pp.347-378.

26) 日本セラミックス協會 編, 『セラミック工學ハンドブック(下)』 (技報堂出版株式會社, 1989), p.1421.

27) 참고로 환원분위기의 변조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CO)의 영향으로 산화제이철(酸化第二鐵)이 산 화제일철(酸化第一鐵)로 변화하는데 그 화학식은 $Fe_2O_3 + CO \rightarrow 2FeO + CO_2$ 와 같다.

라서 청자는 태토와 유약에 함유된 산화철이 환원분위기라는 변조조건에 화학적 변화를 통해 발색된 도자기임을 알 수 있다. 고려중기에 해당되는 비색(翡色)의 청자는 산화철과 산화티타늄을 함유된 태토와 유약이 환원변조의 가장 이상적인 화학반응의 산물일 것이다. 청자에는 기본적인 환원분위기에서 벗어나 갈색을 띠는 청자가 상당히 많다. 이는 산화 또는 중성분위기에서 변조된 것으로 당시에 변조분위기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었음을 보여준다.

청자는 일반적인 도자기와 비교하면 유층이 두껍고, 기포가 많이 존재한다. 두꺼운 유층은 태토에 유약을 두껍게 씌우는 기술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고, 색상을 더욱 짙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빛이 유층에 존재하는 기포에 닿으면 빛의 흡수, 굴절, 분산, 산란 등의 현상을 일으켜 가시적으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데 기포가 크면 녹색을 띠게 되고, 기포가 작으면 청색을 띠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태토와 유층의 경계면 상태도 빛과 유약의 기포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과 같이 가시적인 색상에 영향을 주고, 특히 태토색상에 따라 청자색상은 크게 달라진다.²⁸⁾

IV. 맺음말

고려청자의 제작기술을 밝히려는 연구는 고려청자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아주 미흡한 편이고, 그러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를 토대로 청자의 태토, 유약, 변조기술을 고려한 넓은 범주에서 고려청자의 정의만이라도 설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현 단계에서 고려청자는 산화철 1.5~3% 정도가 함유된 태토와 유약을 사용하였고, 1,180℃ 정도의 온도와 환원분위기의 변조과정을 통해 회색의 태토와 녹색의 유층으로 형성된 도자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고려청자는 청자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태토와 유약제조 기술력과 가마구조를 포함한 안정적 변조기술에 의해 이루어진 도자기이다. 청자에서 태토와 유약의 제조기술은 크게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

28) 한국과학재단, 『한국전통기술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도자기분야-』 (1994), pp.122-123. ; Palmela B. Vandiver, 「Ancient Glazes」, 『Scientific American』 (1990), pp.80-87.

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성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청자특성에 적은 변화도 확인되고 있다. 청자제작에서 가장 커다란 기술변화는 고려초기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다란 규모의 가마구조가 점차 사라지고, 작은 규모의 가마구조는 계속 이어지는 번조기술에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청자의 제작에는 이론적 과학의 배경이 없었겠지만, 경험적 과학의 터득과 바탕이라는 기술에 의해 지속적으로 청자가 제작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고려청자의 전반적인 제작기술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청자제작을 위해서도 도자사 연구와 더불어 제작지역, 시기, 청자의 종류 등 세부적이고, 단계적으로 청자의

과학기술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 중기 상형청자의 조형적 특징

백은경

1. 머리말
2. 고려시대 상형청자의 제작 상황 검토
3. 고려 중기 상형청자의 조형적 특징
4. 맺음말

1. 머리말

象形이란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뜨다'라는 의미이므로 '상형청자'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형상을 본 떠 제작한 청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상형청자 중에는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큼 조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수한 유물들이 많지만 출처를 알 수 없이 전래된 기물들이 대부분이고 가마터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상형청자파편은 많이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상형청자 중에는 뛰어난 조형감을 보여주는 것이 많으므로 이는 고려청자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상형청자는 기물의 형태에 따라 기형 자체가 상형물의 형태를 취한 것, 기물의 일부분에 상형물을 붙여 장식한 것, 상형물의 형태를 응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기형 자체가 상형물의 형태를 취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상형청자이다. 두 번째, 기물의 일부분에 상형물을 붙여 장식한 것은 주구나 손잡이 등에 어떤 구체적인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빚어 붙인 것이며, 세 번째 상형물의 형태를 응용하여 제작한 것은 청자 과형병 등과 같이 동식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본 떠 기물을 제작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상형청자의 가장 특징적인 부류라고 할 수 있는 기물 자체가 상형물의 형태를 취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상형청자는 유약의 색과 조형적 표현에서 볼 때, 청자 제작의 초기나 후기의 것이라기보다는 제작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 시기인 고려 중기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계에서도 상형청자의 제작·사용 시기를 12세기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²⁹⁾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문헌기록과 편년

29) 姜敬淑,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p. 186 ; 鄭良謨, 『高麗青磁』,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유물을 통해 12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 중기 상형청자의 제작시기와 상황을 검토해 보고, 12세기 이전과 이후의 상형청자 제작 상황과 상형청자의 조형적인 특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한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상형도자기를 제작했던 중국 상형도자의 소재와 용도, 제작기법, 유약 등의 비교를 통해 고려 상형청자의 조형적인 특징을 살펴보겠다.

2. 고려 시대 상형청자의 제작 상황 검토

상형청자 제작시기에 대해서 현존하는 관련 문헌자료와 편년이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상형청자 제작의 중심시기라고 생각되는 12세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찰하고, 12세기 이전과 이후의 상형청자 제작상황과 조형적인 변화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12세기가 상형청자 제작의 중심시기임을 다시 한 번 검증해 보고자 한다.

1) 12세기

① 『宣和奉使高麗圖經』의 「狻猊出香」



(도 1) <靑磁獅子有蓋香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國寶 60
호.

『宣和奉使高麗圖經』은(이하 『高麗圖經』으로 약칭) 현재 까지 전해지는 문헌 가운데 고려중기의 청자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자료를 담고 있는 책이다.³⁰⁾

『高麗圖經』에는 당시 고려에서 사용하던 여러 가지 종류의 器皿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상형청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들이 있어 주목된다. 『高麗圖經』 卷 第三十二 器皿三 陶爐條에는

사자 모양으로 만든 향로는 翡色으로, 위에는 쭈그리고 있는 짐승 모양이 있고 아래에는 仰蓮花가 짐승을 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종류 가운데 오직 이 물건만이 가장 정교하고 좋은 제품이다. 그 나머지는 越州의 옛날 秘色이나, 汝州의 新窯器와 대략 비슷하였다.³¹⁾

p. 205 ; 尹龍二, 「高麗陶瓷의 變遷」, 『韓國陶瓷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p. 128.

30) 『高麗圖經』은 모두 6冊 40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北宋 徽宗(1100~1125)시대인 宣和 5年(1123年)에 고려에 왔던 북송의 사신 徐兢(1091~1153)이 고려에서 한 달간 여행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기록하여 宣和 6年(1124年) 北宋 王府에 바친 고려견문록이다. 그러나 그림부분은 靖康의 變(1126~1127年)때 없어지고 현재는 기록만이 전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현재 전하는 상형청자 중에서 『高麗圖經』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가장 유사한 상형청자향로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靑磁獅子有蓋香爐〉를 들 수 있다(도 1). 이 향로가 『高麗圖經』에서 서술하고 있는 향로와 다른 점은 사자를 받치고 있는 양련화가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高麗圖經』에는 청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형기물을 제작·사용했던 기록이 있다. 卷 第三十 器皿一 獸爐條에는 狻猊出香처럼 구체적인 동물의 형상을 이용해 제작한 금속제 향로인 子母獸爐에 관한 부분이 있다.³²⁾ 銀으로 제작한 子母獸爐는 높이가 4척(120.4cm)이고 너비는 2척 2촌(66.22cm)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향로인데,³³⁾ 이와 같은 장대한 규모의 향로를 입체적인 獅子의 형태로 제작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고려 匠人들의 조형감과 공예품 제작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高麗圖經』에 나타난 이와 같은 기록들은 徐兢이 고려를 방문했을 당시인 1123년, 즉 12세기 전반기에 금속은 물론 도자기로 제작한 상형 기물들을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해준다.

『高麗圖經』에는 狻猊出香이나 子母獸爐와 같이 기물 전체를 상형으로 제작한 것 외에 기물 일부에 상형물을 붙여 장식한 器皿들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高麗圖經』 卷 第二十六 燕飲條에 보면,

…器皿은 거의 금도금한 것을 사용하고 흑간은 은으로 된 것도 있으나 푸른 질그릇(靑陶)을 값진 것으로 친다…³⁴⁾

라는 기록이 있어 당시에 아직 청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단계는 아니었음을 알려 준다. 따라서 이 책이 씌여진 12세기 전기에는 청자로 제작된 그릇은 물론 〈靑磁獅子有蓋香爐〉와 같은 상형청자가 제작 되어 사용되기는 했으나 아주 폭넓게 사용되던 시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1) 『宣和奉使高麗圖經』 卷 第三十二 器皿三 陶爐條: 狻猊出香亦翡色也上有蹲獸下有仰蓮以承之諸器惟此物最精絕其餘則越州古秘色汝州新窯器大相類

32) 子母獸爐는 은으로 만들었는데 조각하여 아로새긴 것과 만든 모양은 아주 정교하다. 큰 짐승이 쭈그리고 앉아 작은 짐승을 움켜잡고 있는 형상으로 뒤돌아보고 입을 벌리고 있다. 입에서 쯤이 나온다. 오직 會慶殿과 乾德殿의 공적인 모임 때에만 양쪽 기둥 사이에 놓는다…(『宣和奉使高麗圖經』 卷 第三十 器皿一 獸爐條: 子母獸爐以銀爲之刻鏤制度精巧大獸蹲踞小獸作搏攫之形返視張口用以出香惟會慶乾德公會則置於兩楹之間…)

33) 12세기경 宋나라에서 사용하던 척도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사용하던 당척이 1尺=30.1cm이고 또 朝鮮世宗 당시의 黃鐘尺이 1尺=34.72cm인데, 세종조와 270년의 차이가 있어 비교하기가 곤란하며, 오히려 宋의 바로 이전인 당척이 그대로 宋나라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崔夢龍, 『高麗圖經에 보이는 器皿』, 『韓國文化』 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5), p. 70 참조.

34) 『高麗圖經』 卷 第二十六 燕飲條: …器皿多以塗金或以銀而以靑陶器爲貴…

② 『高麗史』의 「養怡亭」과 窯址 출토 상형자기편

상형청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청자 제작상황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다른 문헌으로는 『高麗史』를 들 수 있다. 고려 毅宗年間(1146~1170)인 1157년 기록에 보면 養怡亭 靑磁瓦에 관한 서술이 있어 주목된다. 『高麗史』 毅宗 十一年條에 이르기를,

…궁궐 동쪽에 壽德殿, 天寧殿의 離宮이 이룩되었다. …정자 남쪽에는 못을 파고, 그 북쪽에는 養怡亭을 지어 청자기와를 입혔으며 남쪽에는 養和亭을 짓고 종려나무로 지붕을 이었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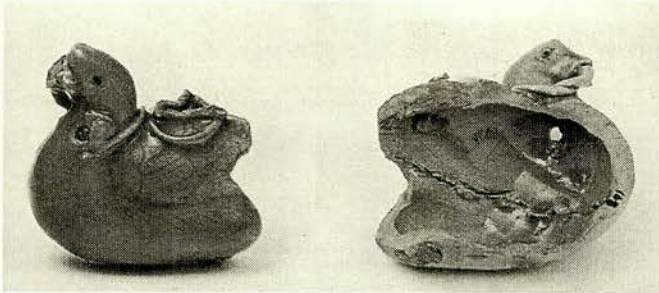
라는 내용이 있다. 청자로 기와와 같은 건축자재를 제작하였다는 것은 청자 제작기술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로 이는 상형청자의 제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형청자 역시 碗, 鉢 등과 같이 정형화 된 기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형의 소재가 어떤 것이 되는가에 따라 기물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응용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자기와가 생산되던 1157년, 12세기 중반에는 상형청자 또한 자유자재로 응용·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형상화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태토와 유약의 성질, 제작기법에 관한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高麗史』의 이 기록을 통해, 불과 34년 전인 1123년 徐兢이 고려를 방문했을 때와는 청자의 제작상황이 현저히 달라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123년에는 청도기가 귀해 값진 것으로 친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에 비해, 1157년에는 청자로 기와를 제작할 정도로 청자의 제작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30여년의 기간 동안에 고려에서 청자제작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이며 상형청자 또한 이 기간에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養怡亭에 덮었다는 청자 기와와 동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康津 沙堂里 堂前窯址에서 음각문이 장식된 청자기와가 출토된 바 있다. 또한 沙堂里 窯址에서는 靑磁瓦片과 함께 여러 象形靑磁片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이 중 머리와 목, 측면 일부가 파손된 鳥類로 추정되는 상형청자편도 함께 출토되고 있어 청자기와가 제작될 당시 상형청자도 함께 제작되었



(도 2) <靑磁鳥形片>, 康津 沙堂里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5) 『高麗史』 卷十八 世家 卷第十八 毅宗十一年 四月一日 丙申條: …亭南鑿池其北構養怡亭蓋以靑瓷南構養和亭蓋以椽…

음을 증명해준다(도 2). 이 외에 청자가 건축물의 일부로 사용된 또 다른 예로는 扶安 柳川里에서 수습된 실내 벽장식용 靑磁陶板을 들 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柳川里에서 출토된 청자과편들은 그 제작의 중심시기가 12세기 후반 明宗년간인 1170, 1180년대이고 넓게는 12세기 후반~13세기 초반까지이다.³⁶⁾ 扶安 柳川里 2호 가마에서는 <靑磁香爐片>, <靑磁蓋托>, <靑磁陰刻蓮瓣文香垸> 등과 함께 상형청자편으로는 <靑磁鴨形硯滴片>이 출토되었는데, 유천리에서 출토된 <청자압형연적편>은 오리의 부리와 꼬리, 몸통의 절반 정도가 파손된 상태이지만 전체적인 형태의 추정은 가능하다(도 3). 오리의 몸통부분은 가늘고 굽은 음각선



(도 3) <靑磁鴨形硯滴片>, 扶安 柳川里 7區域 出土.

을 적절히 이용하여 날개와 깃털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제작의 중심시기가 1170~1180년대인 유천리 가마터에서 이와 같은 청자오리형연적이 출토되었으므로 상형청자는 12세기 중·후반 경에도 꾸준히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2세기 이전

① 『五代會要』 卷 三十

12세기 이전에 상형기물과 관련된 문헌으로는 『五代會要』를 들 수 있다.³⁷⁾ 『五代會要』 卷 三十의 記錄을 통해 보면 고려는 건국초기인 929년에 廣評侍郎 張玘 등 52인을 後唐에 보내어 사자상 은제향로(銀香獅子), 구름과 별을 새겨 넣은 금장식 검, 말, 금은으로 장식한 매떡, 흰 모시, 흰 방석, 머리털, 인삼, 향유, 은장도, 목에 다는 방울, 잣 등을 바쳤다는 내용이 있다.³⁸⁾ 銀香獅子에서 銀은 재료, 香은 향로라는 기물,³⁹⁾ 獅子는 향로에 장식된 동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銀香獅子가 어떤 형태의 기물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자와 향로라는 기물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狻猊出香과 비슷한 형태의 향로였을 가능

36) 扶安 柳川里 제 7구역에서 출토된 청자편들 중에서 절대편년을 가진 자료는 출토되지 않았다. 12세기 후반~13세기 초반이라는 이 가마의 제작 시기는 요지 출토품을 12세기 중, 후반의 편년자료들과 비교를 해 본 결과 얻어진 것이다.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圓光大學校博物館全羅北道扶安郡, 2001), pp. 302~305.

37) 《五代會要》 30권은 五대의 문물제도를 279항목으로 분류 편찬한 서적으로, 실록의 奏狀, 詔書 등을 인용하여 新舊《五代史》를 보완한 것인데 5대의 사회 경제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문헌의 하나이다. 이 책의 저자인 王溥(922~982), 并州 祁縣人으로 자는 齊物로서 948년(後漢乾祐 1) 진사 甲科에 급제하여 비서랑·중서사·한림학사·예부시랑 등을 역임하였다. 後周 때 중서시랑평장사에 올랐고, 송초에司空이 되었으며 저서로는 《唐會要》, 《五代會要》 등이 있다.張東翼, 『宋代歷史資料集錄』(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 113 참조.

38) 天成四年八月 復遣廣評侍郎張玘等五十二人來朝 貢銀香獅子·銀鑿·金裝鍍雲星刀劍·馬匹·金銀鷹·絛鞵·白紵·白氍頭·髮·人參·香油·銀鍍剪刀·鉗·鈹·松子等-《五代會要》 30, 장동익, 앞의 책, pp. 111~11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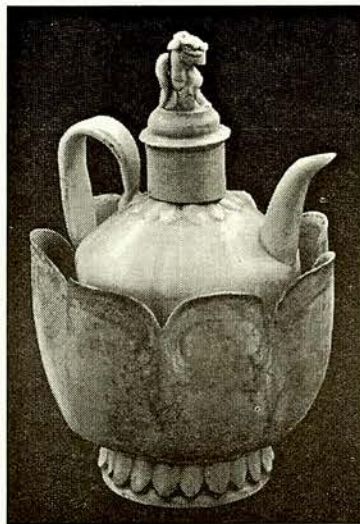
39) 狻猊出香에서도 香은 향로라는 기물을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미 고려에서는 비록 청자는 아니지만 금속제 상형공예품을 외국에 보낼 만큼 수준 높은 공예품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형으로 기물을 제작하는 것은, 금속이라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미 고려 초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며 이런 훌륭한 공예품 제작기술은 고려 중기에 우수한 상형청자들을 제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② 元祐二年墓(1087년) 출토 <靑白瓷刻花注碗>, <綠釉獅蓋香熏>



(도 4) <綠釉獅蓋香熏> 北宋 1087年 하한, 安徽省博物館 소장.



(도 5) <靑白瓷刻花注碗>, 北宋 1087年 하한, 安徽省博物館 소장.



(도 6) <靑磁獅子鈕蓋注子·承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국 안휘성 元祐二年墓에서 출토된 <綠釉獅蓋香熏>과 <靑白瓷刻花注碗>은 1087년의 하한을 가지고 있는 유물로(도 4, 5). <靑白瓷刻花注碗>은 고려 상형청자 중 국립중앙박물관의 <靑磁獅子有蓋香爐>와 비교할 수 있다(도 6). 손잡이와 뚜껑, 몸체의 수직으로 꺾이는 어깨 부분 등에서 두 유물 모두 금속기의 여운을 보이고 있으며, 주자 뚜껑 상면에는 긴 꼬리를 등에 붙인 형태의 사자가 장식되어 있다. <청백자각화주완>의 연대에 근거하여 고려의 <청자사자누개주자>도 11세기 후반 경에는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綠釉獅蓋香熏>을 통해 비록 청자는 아니지만 11세기 후반에 중국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상형도자향로가 이미 제작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려에서도 12세기 이전에 이런 향로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향로는 『高麗圖經』에서 묘사한 「狻猊出香」

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靑磁獅子有蓋香爐〉도 이미 이 시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12세기 이후

① 『東國李相國集』의 「綠瓷硯滴子」

『東國李相國集』은 고려 무인정권기의 문인 李奎報(1168~1241)의 저서로 이 책에는 2074수의 詩賦, 584수의 雜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규보는 무인정권 초기에 대표적인 소의 문인이었으나 1199년(神宗 2年) 무인집정 崔忠獻에 의해 全州司錄에 등용된 후 崔瑀정권(1219~1249年)에 이르러 측근 문관으로 크게 활약하였다.⁴⁰⁾ 『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여러 문학작품들 중에서 상형청자와 직접 관련된 것은 卷 第十三 古律詩의 「綠瓷硯滴子」이다.

누군지 어린아이 하나
 살결은 옥처럼 맑고
 무릎 꿇고 공손히 앉은 모습
 이목구비 번듯해라
 어느 하루 게으름 없이
 병을 들고 물을 따라주었네
 내 본시 시 짓기를 좋아해서
 하루에도 천 장이나 써내는데
 벼룻돌에 물이 말라 종을 부르면
 종은 귀머거리인 듯 못들은 채
 천 번이나 불러도 대답 안 하니
 목이 그만 쉬고 만다네
 너는 스스로 내 옆에 있어
 벼룻돌에 물을 대주니
 그 은혜 어이 갚으랴
 벼룻돌 고이 지켜 보존하리라⁴¹⁾



(도 7) <靑磁童女形硯滴>,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소장.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 동자형연적은 현재 전하는 상형청자 중에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에 소장된 〈靑磁童女形硯滴〉과 비슷한 모양이었을 것으로 생각

40) 황병성, 「이규보의 군신군자관의 성격」, 『全南史學』 제19집 (전남사학회, 2002. 12), p. 199.

41) 『東國李相國集』 卷 第十三 古律詩: 綠瓷硯滴子

么麼一靑童 綴玉作肌理 曲膝貌甚恭 分明眉日鼻 競口無倦容 提瓶供滴水 我本好吟哦 作詩日千紙 硯潤呼倦僕 倦僕佯聾耳 千喚猶不應 喉嚨乃始已 自汝在傍邊 使我硯日泚 何以報爾恩 慎持無碎棄

된다.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동녀형연적은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양손으로 정병을 받쳐 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규보의 「綠瓷硯滴子」에 묘사된 동자형연적과 유사하다(도 7).

『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시 중에는 연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 전하는데 연대가 있는 시들을 뽑아 비교해 본 결과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시들이 대부분 연대순으로 수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⁴²⁾ 『東國李相國集』 卷 第十三 古律詩의 「綠瓷硯滴子」를 중심으로 연대가 있는 전·후의 시를 살펴본 결과 이 시는 己巳年(1209)~壬申年(1212) 사이에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⁴³⁾ 이 시가 지어진 1209~1212년은 이규보가 直翰林院이라는 벼슬에 있던 시기이다. 한림원직은 '淸要職'이라고 하여 그 위상이 일반 관직과는 달랐지만 품계 상으로 보았을 때 아주 높은 관직에 속하지는 않는다.⁴⁴⁾ 이런 계급의 문인이 상형청자 연적을 사용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규보가 이 연적을 사용했을 당시인 12세기 말, 13세기 초반에는 상형청자의 수요층이 최상류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층이 어느 정도 확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崔沆墓 출토 〈靑磁陽刻辰砂蓮瓣文瓢形注子〉

12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대가 있는 유물로는 1257년의 하한을 가지는 崔沆묘에서 출토된 〈靑磁陽刻辰砂蓮瓣文瓢形注子〉를 들 수 있다. 이 주자의 위, 아래 몸통 사이에는 연 줄기를 잡고 있는 작은 동자가 장식되어 있는데 13세기 이후에도 이 동자와 같은 상형청자가 꾸준히 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간접적인 자료이다(도 8). 이 주자는 표면을 진사채로 화려하게 채색하고 있어 12세기에 제작된 상형청자에 비해 다소 장식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도 8) 〈靑磁陽刻辰砂蓮瓣文瓢形注子〉 1257年, 傳 崔沆墓 出土, 호암미술관 소장, 國寶 133호.

③ 신안해저 출토 〈靑磁獅子形硯滴〉

42) 『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시들은 후집 제 1 권의 63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대순으로 배열된 것으로 보았으며, 문류는 類별로 분류하여 저술 연대의 선후가 없다고 하나 같은 類간에는 약간의 연대선후가 고려된 것으로 보았다. 魯平奎, 「李奎報 哲學思想研究」(成均館大學校 대학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pp. 4~5.

43) 『東國李相國集』 제 13 권 고을시, 「己巳年(1209, 이규보의 나이 42세) 燈夕에 한림원에서 지어 올린다. 문기장자시(文機障子詩) 2수 → 「녹자연적자」 → 1212년(壬申, 이규보의 나이 45세)에 「다시 옥당에 들어가며 [再入玉堂詩]」라는 시 두 수를 지었다(『東國李相國集』, 이규보 연보에서 확인).

44) 박용운, 「고려시대의 淸要職에 대한 고찰」, 『高麗時代 官階官職 研究』(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pp. 213~236.

12세기 이후에도 상형청자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유물로는 신안에서



(도 9) <靑磁獅子形硯滴>, 신안해저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출토된 <靑磁獅子形硯滴>이 있다(도 9). 유물과 함께 발견된 동전 중 至大通寶(1310年)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때는 14세기 초반의 元代 무역선으로 추정되지만⁴⁵⁾ 같이 출토된 고려청자는 14세기 전반기의 작품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사자형연적은 대략 1세기 정도 앞선 연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하지만 문헌과 편년이 있는 유물을 통해 고려 상형청자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高麗圖經』을 통해 12세기 전기에는 청자라는 자기 자체도 귀중하게 여겼지만 이미 「狻猊出香」이라고 하는 상형청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2세기 중반인

1157년 『高麗史』의 「養怡亭」에 관한 기사에서는 청자로 기와를 제작해 사용할 정도로 청자로 그릇 이외의 다양한 종류의 일상품을 만들어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고 기와와 동반 출토된 상형청자파편들을 통해 상형청자의 제작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13세기 전기 자료인 『東國李相國集』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통해 청자는 이미 아주 고위 관료가 아닌 계급에서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가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상형청자는 12세기를 중심으로 그 한 세기를 지나는 동안 제작기술의 진보는 물론 수요자 계층에 있어서도 보다 향유계층이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형청자는 12세기를 중심으로 우수한 기물들이 제작되었으며, 13세기의 일정 시점까지 존속되다가 쇠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상형청자는 점차 기물 전체가 상형의 형태로 제작되기 보다는 기물의 일부에 작은 상형물을 붙이거나 상형물의 형태를 응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 상형청자는 象嵌이라는 화려한 장식기법이 성행함과 동시에 서서히 쇠퇴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상형물을 형상화한 기물 자체의 조형미보다 상감기법으로 장식된 평면적이고 화려한 장식문양을 선호하는 쪽으로 수요자의 취향이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고려 중기 상형청자의 조형적 특징

다음으로 동시기에 제작되었던 중국 상형도자와의 비교를 통해 고려 상형청자만의 조형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고려 상형청자는 제작 초기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

45) 위의 책, p.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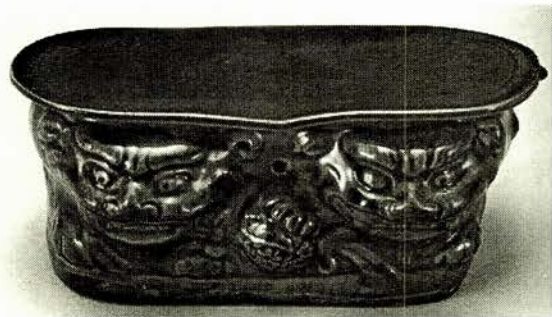
지만 고려의 청자 제작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중국의 영향보다는 당시 고려의 실정에 맞고, 고려 사람들이 요구했던 상형기물을 제작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려에서 상형청자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던 고려 중기 이후에는 기물의 종류와 상형의 소재에 있어서도 중국과는 차이를 보이며 수요계층과 관련하여 제작기법적인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1) 기물의 소재와 용도

상형자기는 향로, 연적을 비롯해 베개, 인물상, 주자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또한 상형의 소재로 사자, 용을 비롯해 기린, 원숭이, 오리, 인물상 등 다양한 소재를 형상화하였다. 고려 상형청자는 枕이나 인물상보다는 향로나 연적과 같은 기물로 더욱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반면, 중국은 향로, 연적보다는 인물상, 枕과 같은 상형자기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자기 베개에 있어서, 고려에서는 쌍사자형으로 제작된 것만이 확인된 것에 비해(도 10) 중국의 상형자기베개는 누워있는 동자, 여인, 호랑이, 사자 등 보다 다양한 소재가 활용되었다. 이중에서도 쌍사자침은 청자나 백자유가 시유된 것보다는 삼채나 갈유가 시유된 것들이 많다(도 11). 당시 중국에서 이처럼 다양한 소재로 여러 상형자기 베개들이 제작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에서 알지 못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고려가 중국에서 유행한 자기양식을 무조건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고 당시 고려 수요계층의 요구에 맞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



(도 10) <靑磁雙獅子枕>, 호암미술관 소장, 寶物 78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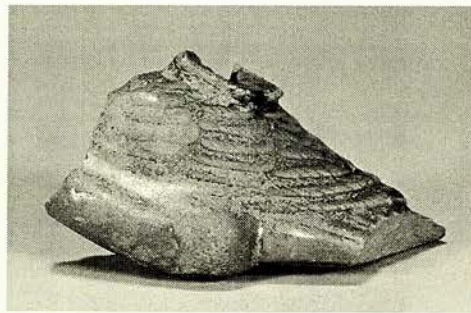
(도 11) <褐釉白地綠斑 獅子台付枕> 北宋~金, 岡山·林原美術館 소장.

다.

2) 제작기법

고려시대에 제작된 상형청자는 대부분 손으로 빚어서 형태를 만든 것인데 당시 상형청자 제작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는 부안 유천리 7구역에서 출토된 <靑磁鴨形硯滴

片)과(도 3) 경기도 여주 원향사지에서 출토된 <靑磁鴨形硯滴片>이 있다(도 12). 유천리에서 출토된 <청자압형연적편>은 손으로 빚어서 오리 형태를 만들고, 형태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흙이 굳어졌을 때 오리의 몸체 중간을 가로로 길게 절단하였다. 파편의 내면을 통해 가로로 길게 절단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등분 된 오리의 배속 태토를 도구를 이용하여 파내고 자른 부분을 다시 맞대어 놓고 태토를 덧발라 정교하게 붙인 후 외면을 잘 다듬어 마무리 했다. 이 제작 기법은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 만들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이 가장 많이 소요되지만 제작되는 결과물에 있어서는 가장 고급의 상형자기가 제작될 확률이 크다.



(도 12) <靑磁鴨形硯滴片>
驪州 元香寺址 出土.

상형기물의 제작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손으로 빚어 형태를 만든 후, 어느 정도 흙이 굳어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었을 때, 기물의 한 부분을 절단하여 안에 채워진 흙을 파내고 다시 접합하는 것이다.⁴⁶⁾ 두 번째는 상형물의 형태가 물레를 돌려 형태를 만든 후 변형이 가능한 경우로서, 일단 물레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형태를 성형한 후 흙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원통의 외면을 두드려 전체적인 형태에 변화를 주거나 흙을 덧붙여 형태를 만들고 세부적인 묘사를 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똑같은 상형기물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하는 대량생산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陶范을 사용하는 것이다. 도범을 이용하면 똑같은 기물을 여러 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정교함이 떨어지고 복잡한 형태의 기물은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많은 수의 상형기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작되는 기물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에는 미치지 못한다. 고려 상형청자는 당시의 최고위층을 위해 제작되었고, 사용되는 용도 면에서도 일상용기는 물론 향로와 같은 의례용기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 제작되던 다른 청자들과는 다르게 제작 과정에서도 매우 공을 들여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⁷⁾ 따라서 상형으로 제작된 기물들은 조형적 측면, 유약과 태토 면에서 다른 기물들보다 우수한 품질의 것들로 제작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는 현재 전하는 상형청자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도 13).

46) 이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상형물의 어느 한 부분에 구멍을 뚫고 도구를 이용하여 내면의 흙을 파내고 구멍을 막는 방법과 상형물 자체를 두 조각 정도로 절단하고 내면의 흙을 파낸 후 다시 접합하는 방법으로 세분된다.

47) 고려상형청자는 당시 왕실을 중심으로 성행한 불교, 도교 등의 종교적 영향도 보이며 일상적인 기물보다는 의례용기나 문방구로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요자의 계층이나 제작용도 면에서 볼 때 당대 최고의 기술자에 의해 최고의 재료와 기술로서 제작되어야만 했을 것이며 일반적인 청자들과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다.



北宋에서 제작된 상형자기는 고려 상형청자처럼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것도 있지만 가마터에서 출토된 편들 중에는 도범과 같은 틀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들이 많다. 당시 가마터에서 상형자기를 만들었던 틀인 도범들이 여러 개 출토되었는데, 48) 도범에는 사람, 사자 등의 상형물을 떠냈던 흔적이 남아 있다(도 14). 이처럼 도범으로 제작된 상형자기편들은 대부분 형태가 분명하지 못하고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많다(도 15). 상



(도 14) <鳳頭壺流范> 宋
耀州窯 出土.



(도 15) <抱獅狗人物>
北宋, 耀州窯 출토.

형자기의 품질이 이처럼 좋지 못한 것은 이기물의 수요자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의 경우 상형청자가 대부분 상류계층의 수요품으로 제작·사용되었던 것에 비해, 요지출토품을 통해 본 중국 상형자기는 상류계층에서 사용했던 양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작되는 자

기의 양적인 측면으로 보나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중국은 당시 세계의 도자문화를 주도하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중국에서 양질의 상형자기를 만들지 못해서 제작하지 않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양질의 자기를 사용하는 계층에서 상형자기와 같은 특별한 기물의 제작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송과 고려에서 고급자기를 사용하는 계층의 미감이 달랐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고려 상형청자는 도자기 중에서도 고려 상류계층의 미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예로 생각된다.

3) 유약

상형청자의 제작에 있어 기물의 형태를 조형적으로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맑고 투명한 유약을 사용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발색이 좋고 투명도

48) 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耀州窯址』(北京: 文物出版社, 1998), pp. 374~403.

가 높은 유약은 특별히 상형청자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전하는 상형청자 중에 조형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은 모두 투명도가 높은 비색유약이 시유되어있다. 따라서 투명도가 높은 비색유는 우수한 상형청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정교하고 복잡하게 표현된 상형기물에 투명도가 떨어지는 유약이 시유된다면, 그 기물은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세부묘사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명도가 높은 유약은 태토에 섞인 작은 티 하나까지도 모두 투사해낼



(도 16) <靑磁鴨形硯滴>, 간송미술관 소장.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교한 세부묘사가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를 모두 釉面 밖으로 표출해 낼 수 있다. 이런 담록색을 띤 맑은 투명유는 유층의 두께에 따라 농담의 표현까지 가능한데, 이는 조각적 성격이 강한 상형청자를 더욱 입체적으로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도 16). 따라서 고려 상형청자가 고려시대 청자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이처럼 투명도가 높고 발색이 좋은 비색유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 17) <釋迦牟尼佛座像> 元, 首都博物館 소장.

중국 상형자기에 시유되는 유약은 고려의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중국에서는 고려에서처럼 푸른빛을 내는 비색유는 물론 삼채나 흑유 등 투명도와는 무관한 여러 가지 유약을 다양하게 사용했다. 특히 고려 翡色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중국의 秘色釉는 투명도면에서 고려 상형청자에 시유된 翡色釉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다소 불투명한, 유약 자체의 두께를 통해 유색 그 자체를 추구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의 秘色釉도 당시 그 기물을 사용하던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고유의 미와 특색이 있지만, 상형물에 시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중국에서는 수준높은 상형 자기가 많이 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투명도가 좋지 못한 유약을 시유한 상형자기는 정교한 세부묘사가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형태를 식별하는데 용이하지 못할뿐더러 미적으로도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상형자기 제작에 있어 상형물의 세부 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약을 닦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도 한다(도 17). 이런 방법으로 제작된 자기는 태토의 색이 자기의 외면에 드러남과 동시에 정교

한 세부묘사가 상세하게 나타나 비로소 상형물의 형태를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12세기가 고려 상형청자의 중심시기임을 전제로 하고 현전하는 관련 문헌자료와 연대 추정이 가능한 유물들을 중심으로 그 전후 고려에서의 상형청자 제작 상황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상형청자 제작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되는 12세기 이전에는 금속기 등 다른 재료로 상형기물을 제작하고 있었고, 청자로는 전체적인 형태보다는 기물의 일부에 부분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2세기 전반기에 본격적으로 제작이 시작되어 그 세기를 거치는 동안 기술적,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졌고, 13세기로 접어들면서 상감기법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쇠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고려 상형청자의 조형적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12세기를 중심으로 제작된 작품들이라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려 상형청자만의 조형적 독자성을 규명하기 위해 동시기에 중국에서 제작되는 상형자기와 소재와 용도, 제작기법, 유약의 측면에서 비교해본 결과, 상형청자의 전성기인 고려 중기에 제작된 상형청자는 고려의 고급 수요자의 미감이 반영되어 중국과는 구분되는 독자성을 확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조형적 특징으로는 대상을 사실과 똑같이 묘사하기보다는, 표현상에 있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강조와 생략의 방법을 사용해 실제보다 더욱 사실적인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고, 여기에 투명도 높은 비색유가 시유됨으로 인해 상형청자의 조각적인 특성이 더욱 두드러져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고려시대 미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상형청자에 대한 연구는 고려시대 청자에 대한 연구 성과에 비해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전체 고려청자에 대한 연구에 발맞추어 상형의 소재나, 구체적인 용도 등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상형청자의 성격도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고려 상형청자의 의의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상형청자에 여러 측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한다.

<표 1> 문헌에 나타난 상형 기물

	典據	본문	내용	연대	재질
1	《五代會要》卷 30	<p>天成四年八月 復遣廣評侍郎張撈等五十二人來朝貢銀香獅子·銀鑪·金裝鏤雲星刀劍·馬匹·金銀鷹系條鞵·白紵·白氈·頭髮·人蔘·香油·銀鏤剪刀·鉗鉞·松子等</p>	<p>天成 4년 8월 廣評侍郎 張撈 등 52인을 後唐에 보내어 사자상 은제향로[銀香獅子], 구름과 별을 새겨 넣은 금장식 검, 말, 금은으로 장식한 매띠, 흰 모시, 흰 방석, 머리털, 인삼, 향유, 은장도, 목에 다는 방울, 잣 등을 바쳤다.</p>	929년	은
2	《高麗圖經》卷 第三十二 器皿三 陶爐條	<p>狻猊出香亦翡色也上有蹲獸下有仰蓮以承之...</p>	<p>사자 모양으로 만든 향로는 翡色으로, 위에는 쭈그리고 있는 짐승 모양이 있고 아래에는 仰蓮花가 짐승을 받치고 있다.</p>	1123년	청자
3	《高麗圖經》卷 第三十 器皿一 獸爐條	<p>子母獸爐以銀爲之刻鏤制度精巧大獸蹲踞小獸作搏攫之形返視張口用以出香</p>	<p>子母獸爐는 은으로 만들었는데 조각하여 아로 새긴 것과 만든 모양은 아주 정교하다. 큰 짐승이 쭈그리고 앉아 작은 짐승을 움켜잡고 있는 형상으로 뒤돌아보고 입을 벌리고 있다. 입에서 향이 나온다.</p>	1123년	은
4	《高麗圖經》卷 第三十二 器皿三 陶尊條	<p>陶器色之青者麗人謂之翡色近年已來制作工巧色澤尤佳酒尊之狀如瓜上有小蓋而爲荷花伏鴨之形復能作</p>	<p>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翡色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와서 만든 것은 정교하고 빛깔도 더욱 좋아졌다. 술그릇의 모양은 참외(瓜)와 같은데 위에 작은 뚜껑은 연꽃에 엮드린 오리의 모양을 하고 있다.</p>	1123년	청자
5	《高麗圖經》卷 第三十 器皿一 酒榼條	<p>...上爲覆荷兩耳有流連環提紐以金閉塗之...</p>	<p>위에는 연잎을 덮어 놓은 것 같고 양쪽 귀에는 길게 연결된 고리 사슬의 끈이 있는데 사이사이에는 금칠을 하였다.</p>	1123년	금속
6	《高麗圖經》卷 第三十 器皿一 博山爐條	<p>博山爐本漢器也海中有山名博山形如蓮花故香爐取象下有一盆作山海波濤魚龍出沒之狀以備貯湯熏衣之用...</p>	<p>박산로는 본래 한대의 기물이다. 해중에 박산이란 이름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모양이 연꽃과 같아 향로를 만들 때 그 모양을 본따 이름을 지은 것이다. 아래에는 받침분이 있다. 그곳에 산, 바다, 파도, 물고기, 용이 출몰하는 형상을 만들어</p>	1123년	

			놓았으며 끓는 물을 담아 놓아 옷에 향기를 쏘이는 용도로 쓴다.		
7	《高麗圖經》 卷第 三十 器皿一 芙蓉尊條	酒尊之形上有蓋如芙蓉 花之方筩也…	술그릇의 모양은 위에 뚜껑이 있는데 부용꽃이 봉오리 진 것 같다.	1123년	
8	《高麗圖經》 卷第 三十一 器皿二 溫爐條	溫爐之形如鼎而有偃脣腹 下三足爲獸銜之狀…	온로의 모양은 정로와 같은데 입술같이 두터운 둔덕이 있다. 배 아래의 세발은 짐승이 물고 있 는 형상을 하고 있다.	1123년	
9	《高麗圖經》 卷第 三十二 器皿三 茶丞條	…凡宴則烹於廷中覆以銀 荷徐步而進…	대체로 연회 때는 대궐 정원 가운데서 차를 끓여 서 은으로 만든 연잎 모 양의 뚜껑을 덮어 가지고 천천히 걸어와 앞에 내놓 는다.	1123년	은
10	《東國李相國 集》 卷 第 十三 古律詩: 綠瓷硯滴子	么麼一青童 綴玉作肌理 曲膝貌甚恭 分明眉目鼻 競日無倦容 提瓶供滴水 我本好吟哦 作詩日千紙 硯涸呼倦僕 倦僕佯聾耳 千喚猶不應 喉嚨乃始已 自汝在傍邊 使我硯日泚 何以報爾恩 慎持無碎棄	누군지 어린아이 하나 / 살결은 옥처럼 맑고/ 무릎 꿇고 공손히 앉은 모습/ 이목구비 번듯해라/ 어느 하루 게으름 없이/ 병을 들고 물을 따라주었 네/내 본시 시 짓기를 좋 아해서/ 하루에도 천 장 이나 써내는데 …… 너는 스스로 내 옆에 있어/ 벼 룩돌에 물을 대주니/ 그 은혜 어이 갚으랴/ 벼룩 돌 고이 지켜 보존하리라	1209~ 1212년	청자

